

저이며시(예수승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한국도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네팔도 계속 날씨가 덥더니 하루아침에 기온이 뚝 떨어져서 아침저녁으로 긴 팔을 입고 생활을 합니다. 또한 네팔은 서서히 트레킹 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집에서 도 이렇게 멋진 설 산인 히말라야를 바라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멋진 네팔을 만들어 주셨는데 아직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네팔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곤 합니다.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심을 알게 해 주십니다.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네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전 네팔에 엄청난 폭우로 인하여 강주변과 낮은 곳에 사는 현지인들이 홍수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하루아침에 살 곳이 없어졌습니다. 집이 떠내려가고 산사태로 도로가 막히고 입을 것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가운데도 함께 복구하며 도움에 손길로 많이 회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저희 아가페 홈을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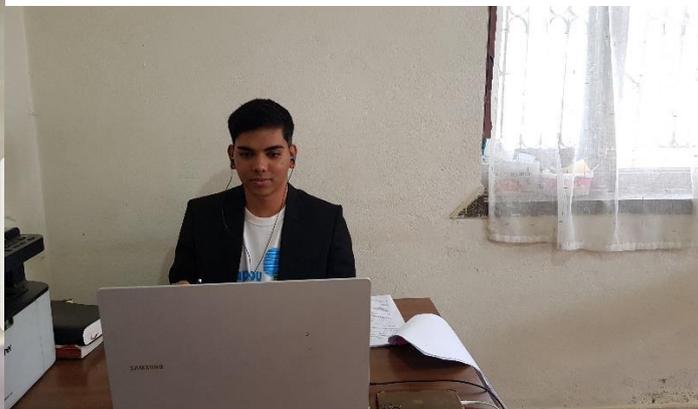
저희 아가페 교회가 낮은 지역에 있는데 다행히 하수구를 비오기전에 고쳐서 물이 잘 내려갔습니다. 아가페 교회안에서 공부하던 학생들 집도 다행히 무사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가페 스태프 한 명 집에 물이 들어오고 가족들이 등등 떠내려가는 상황이며 아무것도 없어서 생필품을 전달했으며 주위에 어려운 분 들과 나눌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1. 아가페 소식을 전합니다.

13일되어서 저희에게 온 아기 이삭이가 어느덧 성장하여 고3을 졸업하고 내년 봄학기 한국 한동대학교 생명과학과에 장학생으로 합격하여 네팔에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삭이가 사춘기 시절에 방황하면서도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았는데 부모 입장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서도 근심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 멋지신 하나님께서 이삭이에게 크나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기도로 후원으로 함께 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어린 이삭이가 의젓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바라만 보아도 행복합니다.

2. 홉스 탁구교실 소식 전합니다.

Hopes 탁구선수와 육군 소속 선수들입니다. 8명의 선수들이 몇 달이었으면 네팔 네셔널 올림픽 탁구대회에 나갈 선수들이며 저희 탁구교실에 기둥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 6시간 씩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에어컨 시설도 없고 탁구테이블 4대놓고 선수들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인데 열심히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저녁5시부터 7시까지 꿈나무들인 학생들이 와서 훈련을 받는데 즐겁고 행복하게 열심히 탁구를 배우는 모습들이 대견스럽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수업 마치고 와서 운동을 하면 많이 힘들 텐데 즐겁게 와서 배우고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니 네팔도 미래가 보일 것 같아 행복합니다. 또한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시간이 오길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2024년 10월3일부터 5일까지 열린 APM 주니어 챔피언십 탁구대회에 Hopes Table Tennis 교실에서 학생들이 나가서 단체전 1,2등 개인전에서 영이 와 히말 학생이 1등을 했습니다.



4.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조사대상이 되고 교회에도 계속 조사하러 오는 시점에 저희들이 아가페 교회안에 Hopes Table Tennis Academy를 열어 탁구선수들이 연습할 곳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미래에 네팔 탁구 꿈나무를 배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이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영혼 구원받아 새로운 삶으로 더 멋진 선수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탁구교실이 12월4일 한달 좀 지나면 1주년이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운데 대회에 나가서도 좋은 성적을 얻으며 최선을 다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1주년 기념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 지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섬기는지 이번 기회에 **1주년 Hopes table Tennis Academy(HTTA) 토너먼트 탁구대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5. 홈스 탁구교실 대회를 합니다.

날짜 :12월 6일 7일 (2틀간)

대상: 학생 11세 미만, 15세 미만 남 여학생

시니어 (40+) 남, 여

비용: 200만원 (100명 예상)

네팔인들과 한국인들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모처럼 네팔인들 초청하여 탁구를 통하여 전도 목적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상금 트로피 메달 간식 점심 대접 등 준비하려면 물질이 200만원 (100명) 예산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조금씩 나누어 동참 해주시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네팔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향기가 흘러가서 누군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알아 가려고하고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동참 해주시길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네팔은 더서운 축제라고 힌두인들 축제기간이라 관공서나 학교가 쉬고 방학 기간입니다. 우리나라 추석 처럼 새 옷을 사 입고 고향에 가서 식구들과 지내고 옵니다. 이때는 카트만두가 텅텅 빈 느낌이지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멋지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숭배들을 하고 있는 기간이라 안타깝습니다. 네팔에 사역하면서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갓난아기를 저희에게 선물로 주셔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며 엄마의 역할을 하면서 힘든 시절도 많았지만 네팔에 온지 20년이 되면서 하나씩 결실을 맺게 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일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옆에서 위로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멋지신 주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부족한 면이 많이 보이지만 아가페를 섬겨 주시는 모든 동역자님들에게 다시 감사함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1. 네팔은 보이지 않게 전도하기 힘들어지고 있으며 선교사들이 조사대상이 되고 있는데 네팔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안전과 네팔이 변화되어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2. 아가페 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나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도록
3. 이삭이가 한동대 합격을 해서 비자가 나오면 학생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가야 하는데 네팔에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비자 또한 수월하게 진행해 주셔서 무사히 한동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4. 12월6일에 홈스 탁구대회를 할 수 있도록 후원금이 채워져 탁구를 사랑하는 네팔 선수들 어르신들과 함께 즐기며 예수그리스도의 향기가 힌두인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5. 아가페 사역을 돕는 스태프 들 과 홈스 탁구교실에 코치들이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힌두인들도 함께 하지만 기도와 말씀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6. 아가페 홈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이 온전히 주님께서 하심을 고백하며 이곳을 통하여 구원에 역사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7. 여러 모양으로 저희 아가페 홈 사역을 섬겨 주시는 모든 동역자님들에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축복이 넘 치 시길 기도합니다.

2024년 10월25일

장 언순 고 연희 선교사 올림

